

새로운 소득원 약용식물 재배 (VIII) 용담(草龍膽)



오대산 1200고지에 핀 용담꽃

임 상 철

상지대학교 농과대학

쌍자엽식물의 용담은 용담과에 속하는 통꽃식물로서 아프리카를 제외한 세계도처에 약 500여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적인 분포는 우리나라와 일본·시베리아에 많이 분포하며 일본에는 용담속에 13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은 관상가치가 있어서 화훼용으로 재배가 되고 있기도 하며 약용으로 이용되는 종도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의 한라산에 자라는 멧용담(*Gentiana nipponica* Maxim.)과 전국의 산과 들에 자생하는 용담(*Gentiana scabra* Bunge var. *Bueggerii*(Miquel)Maxim.) 및 칼잎용담(*Gentiana uchiyamana* Nakai)이 있는데 모두가 관상가치가 있어서 지상부는 화훼로서, 지하부는 약용으로 이용되어 재배할 가치가 많은 식물이다.

다년생의 초본인 용담은 초장이 약 60cm 이상에 달하고 직립한다. 횡단면의 모양은 4개의 모가지며 색깔은 암갈색이다.

잎은 마주보고 나며(對生葉) 근생엽은 인편상이고 경엽은 난상피침형 혹은 피침형으로서 잎줄기가 없으며 길이 5~8cm, 폭이 1~3cm, 3개의 엽맥은 뚜렷하고 끝은 날카롭게 생겼다.

엽면에 톱니(鋸齒)가 있는 것이 용담이며 없는 것이 칼잎용담이다.

꽃은 자주색이며 개화기는 8~10월경으로서 줄기의 끝 잎겨드랑이에 둘러붙고 꽃부리는 종모양이고 가장자리의 끝이 5갈래로 갈라진다. 수술은 5개, 암술은 1개이고, 꽃받침은 역시 종모양으로 5갈래로 갈라진다.

결실기는 10~11월이고 열매는 담갈색의 삭과로서 좁고 길며 2갈래로 벌어져 종자를 산포시킨다. 종자는 1000립중이 0.05g 정도로서 매우 미세하다.

성분 및 용도

식물명의 용담은 ‘용의 쓸개’를 의미하는데 뿌리의 맛이 매우 쓴데에서 유래되었다. 유효성분은 뿌리에 있는 일리로이드 고미배당체인 Gentiopicoside로서 신선한 뿌리에는 약 8~9% 함유되어 있으며 건조된 생약으로 조제할 경우에는 2~4%로 감소된다. 겐티오피크로사이드에는 위액분비의 촉진작용은 없으나 흰쥐와 토끼의 적출장관운동의

진폭확대에 관한 보고가 있다. 또한 2차 생성물인 겐티아닌은 중추신경에 대하여 흥분 및 마비작용, 혈압강화작용이 있다. 이 밖에도 Gentisin, 정유, Gentic acid 등이 함유되어 있다. 학명의 *Gentiana*는 B.C. 500여 년경에 건설된 아드리아해 연안 국가의 겐티우스왕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강장제로서의 약효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플리니(pliny)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알수 있듯이 용담은 식욕을 회복시키고 위를 튼튼하게 하며 강장효과가 있다. 한방에서는 치열(治熱), 건위(健胃), 사간담열(瀉肝膽熱), 이뇨(利尿), 치안적(治眼赤), 폐습종(廢濕腫)에 내복한다.

재배적지

우리나라의 전국 각지에 자생되고 있으므로 어느곳에서나 재배가 가능하다. 자생지의 토양 환경은 수분이 적당하고 부식질이 상당히 있는 곳으로 적습한 점질양토나 식질양토가 양호하지만 일반적으로 개간지에서도

생육이 잘 된다.

채종 및 번식

건전한 포기에서 9월 하순 내지 10월 중순경에 채종한다. 완숙된 포기를 베어서 바로 세워 건조시킨후 삭과가 완전히 벌어지면 포기를 거꾸로하여 채종하는데 채종시에는 종자가 극미세 종자이므로 바람이 불지않는 곳에서 조심스럽게 행하여야 한다. 종자의 수명은 매우 짧기 때문에 너무 건조되거나 오래두면 발아력이 극히 저조하게 된다.

번식은 종자번식과 포기나누기법이 있으나 주로 종자번식을 이용한다.

종자번식은 채종후 가을에 즉시 파종하여야 발아력이 양호하며 파종상은 120~150cm의 두둑을 만들고 10cm간격으로 줄뿌림한다. 줄뿌림을 할때에는 모래와 함께 혼합하여 파종하여야 골고루 파종이 가능하며 파종후 가는 모래로 얇게 복토하고 그 위에 짚으로 피복하여 발아가 촉진되도록 한다. 묘상의 위치는 반음지를 선정하고 파종상을 만들때

는 잘 썩은 퇴비와 초목회를 기비로 사용한다.

포기나누기법은 실생으로 육성된 어미포기나 산야에 자생하는 어미포기로부터 건실한 눈이 2~3개 부착되도록 하여 근부와 함께 나누어 심는 방법이다. 포기나누기의 시기는 봄과 늦가을에 할수 있으며 수확기를 단축시킬 수는 있으나 많은 묘를 획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정식 및 육묘관리

본밭에 정식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가을 또는 이른 봄에 밭을 갈아서 정지한 다음 밑거름으로서 퇴비 1500kg, 석회 200kg, 초목회 30kg을 넣고 이랑사이 30cm, 포기사이 15~20cm간격으로 한포기씩 정식한다. 정식후 활착이 되면 1~2회 추비를 주고 중경제초를 행한다. 여름철 한밭이 심하면 생육이 저해되므로 건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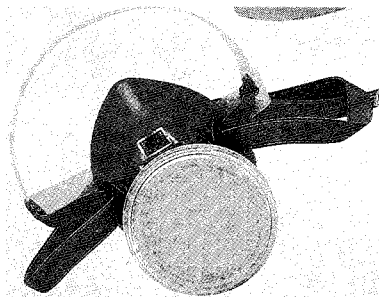
진딧물의 피해가 우려될 때에는 진딧물약제를 살포하여 방제하여야 하나 병에 대하여는 상당히 강한 식물이다.

수확 및 조제

늦 가을 지상부가 마르면 뿌리를 캐어 수확하며 깨끗한 물에 잘 씻어서 극히 가는 뿌리는 제

거하고 햇볕에 5~7일 정도 건조시킨다. 10a당 수량은 건중으로 120kg정도이며 2~3년 생근은 300~400kg 정도 수확이 가능하고 뿌리가 길고 연한 갈색이 나는 것이 품질이 좋다.

● 새 상품 안내



농약마스크 DM-26

농약중독 예방에 탁월한 효과

농민들이 각종 농약 살포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약마스크가 개발되어 농약중독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각종 방진마스크 및 방독면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都富(대표 金龍鎬)는 농약중독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농약마스크(DM-26)을 개발 시판하고 있는데 90년도 농어민 후계자 대회, 농촌지도자 대회에 출품하여 호평을 받았다.

이 농약마스크는 산업안전관리공단의 검정을 마친 제품으로 시야가 넓고 가벼워 사용하기에 편리하여 흡입력이 높아 호흡이 편안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 악취 및 가스를 흡착시켜 쾌적한 공기만 마시게 하며 각종 농산물, 과수·원예의 농약 살포 및 병·해충 방제, 제초 및 소독작업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외에 (주)都富는 눈을 보호해주는 보안경과 방제복도 생산 보급하고 있다.
연락전화 (02) 295-0473, (02) 299-3021/3